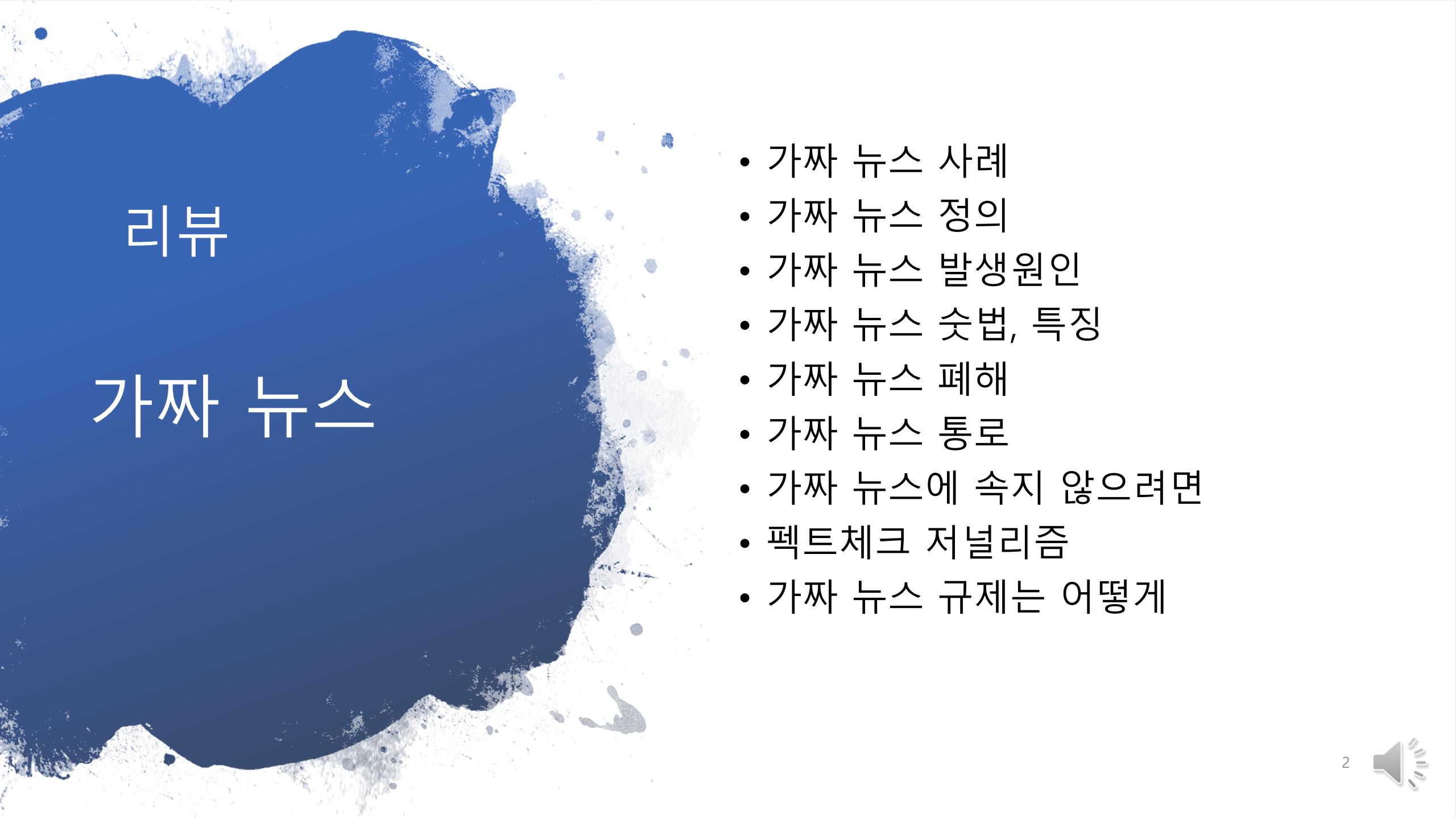


언론과 정부

바람직한 관계는?

동체호





리뷰 가짜 뉴스

- 가짜 뉴스 사례
- 가짜 뉴스 정의
- 가짜 뉴스 발생원인
- 가짜 뉴스 속법, 특징
- 가짜 뉴스 폐해
- 가짜 뉴스 통로
-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 펙트체크 저널리즘
- 가짜 뉴스 규제는 어떻게



언론과 정부

-  사례
-  언론과 정부, 자유와 통제의 반복
-  1988년 언론 자율화 이후
-  언론과 정부 갈등
-  언론 4 이론
-  진자 운동 모형
-  언론과 정부 대립인가 공생인가
-  감시견인가 애완견인가?



1. 나폴레옹의 엘바 섬 탈출과 파리입성 보도

- ◆언론이 권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언론이 어떻게 표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1814년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모니토르'는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 1세의 파리 입성을 이렇게 보도.
 - '**황제 폐하, 드디어 파리에 입성 하시다!**'
-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엘바 섬으로 실질적 '유배', 1814년 2월28일 추종자들을 이끌고 그 섬을 탈출.
 - 그가 3월20일 파리에 입성하기까지 프랑스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



1. 나폴레옹의 엘바 섬 탈출과 파리 입성 보도

- 1814년
- 3월 9일: 괴물 대역적 엘바 섬 탈출.
- 10일: 코르시카 태생의 식인귀(食人鬼), 주앙에 상륙.
- 11일: 맹호, 숨 가쁘게 나타나다.
- 13일: 악마, 리용에 있다.
- 18일: 찬탈자, 60시간이면 수도에 도착.
- 19일: 보나파르트, 무장군 이끌고 전진 중.
- 20일: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 입성은 힘들 듯.
- 21일: 황제 폐하, 드디어 파리에 입성하시다!
- 22일: 황제 폐하, 어젯밤 틸릴리 궁에 환궁.



땡전 뉴스를 아십니까?

- 1980년 신군부 집권이후 공영방송 KBS와 MBC의 뉴스보도
- 메인뉴스 9시 뉴스, 시보가 끝나고 첫 보도는 “전두환 대통령은~”로 시작
- 뉴스가치도 없는 시시콜콜한 대통령 동정까지 무조건 메인 뉴스로
- 심지어 종로에 있는 해장국집을 방문해 시민들을 격려했다는 동정까지 톱으로
- 1980년 MBC 뉴스데스크 진행하던 손석희 아나운서의 땡전뉴스





2. 한국 정부와 언론관계 변천 과정

- ◆ 정치상황 변화와 정부의 언론정책에 따라 정부와 언론 관계는 '자유'와 '통제'의 반복
- ◆ 일제 식민지 말기: 언론은 전쟁 수행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 일체의 비판 허용되지 않는 최악의 통제
- ◆ 1945년 해방-1948년 미 군정기: 서구식 언론 자유 추구, 언론은 좌우 대립 극심
- ◆ 이승만 정부 1948년-1959년 : 경직된 대북 언론정책, 정부와 언론의 갈등 극심
- ◆ 장면 정부 1960년 -1961년 : 언론 자유방임 정책, 사이비 언론 발호
- ◆ 박정희 정부 1961년-1979년 : 강력한 언론 통제와 특혜 병행
- ◆ 전두환 정부 1980년-1987년 : 강력한 언론 통제
- ◆ 언론 자율화 이후 1987년- 현재 : 발행의 자유는 정착됐으나 매체 차별화 정책



2. 자유와 통제의 반복

출처 정진석(2008)

| 자유 | 통제 | 자유 | 통제 | 통제 | 자유 |
|------------------------|------------------------|------------------------|---------------------------|-------------------------|----------------------|
| 1945.8~1948.8 미 군정기 | 1948.8~1960.4 제1공화국 | 1960.4~1961.5 제2공화국 | 1961.5~1979.12 제3.4공화국 | 1980.1~1987.6 제5 공화국 | 1987.6 6.29 선언 이후 |
| 해방 이후 | 이승만 정부 | 장면 정부 |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이후 |
| 발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 허가제, 신규 허가 억제 | 발행의 완전자유허용, 등록제 | 언론사 일제 정비, 신규 허가 억제 |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 신문발행 등록제 |



3. 언론과 정부 관계 -미 군정기(1945-1948)

- ◆ 서구식 언론자유 도입
- ◆ 신문 발행의 등록제 명문화
- ◆ 초기에는 제한 없는 언론자유 보장
- ◆ 나중에 신문발행 제한하고 좌익 신문 폐간
- ◆ <조선인민보><해방일보> 폐간, 남로당 기관지 <노력 인민>도 폐간.
- ◆ 마지막 좌익 신문 <독립 신보> 1946년



3. 언론과 정부 관계-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제1 공화국 시기 1948-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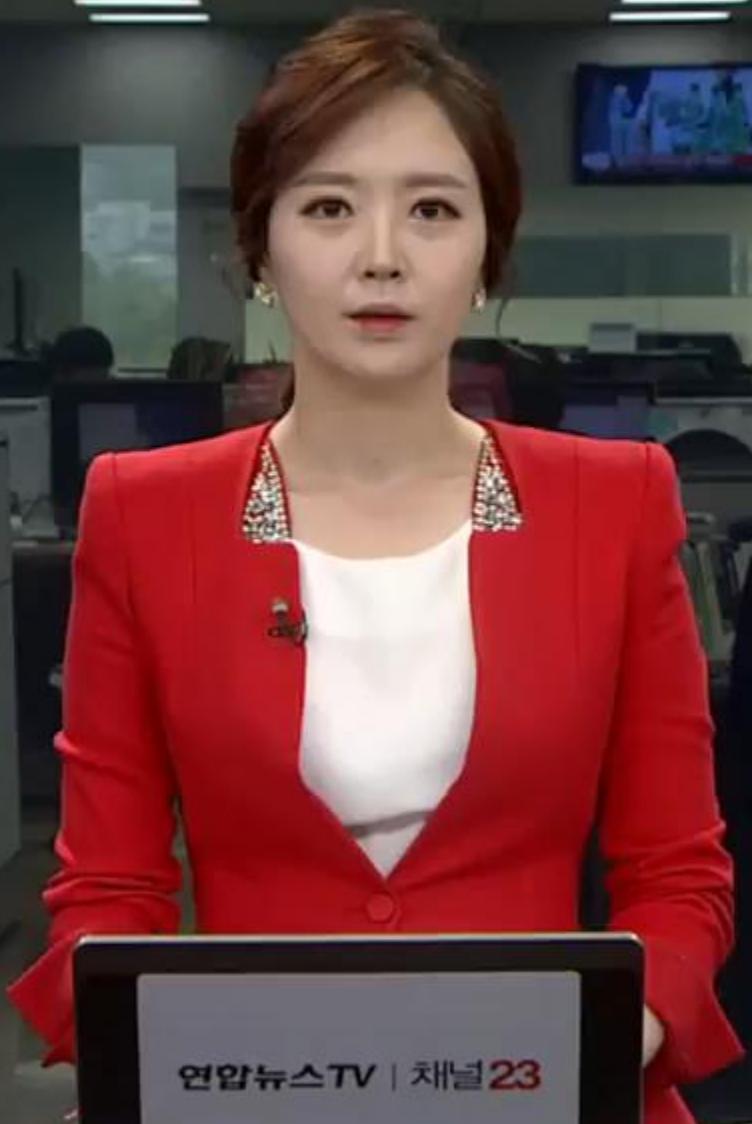
- ◆ 정부 수립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전에
6.25전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 논조로 획일화
- ◆ 피난 수도 부산에서 언론과 권력의 갈등 고조
- ◆ 이승만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여 1952년 5월 정치 파동을 일으키면서
권력은 야당 계열 언론에 탄압으로 대응
- ◆ 동아일보 정간(1955): 3.15. 1면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
다른 기사인 '괴리 휴전위반을 美 중대사' 괴뢰 오식, 한달 정간조치, 대구매일 犬통령 사건
- ◆ 경향신문 폐간 조치(1959년): 2.4 칼럼 '여적' 필화사건으로 내란선동 혐의 적용, 폐간
칼럼내용 '선거가 다수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폭력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
11
- ◆ 경향신문은 1년간 법정소송, 419 혁명으로 경향신문 부활



3. 언론과 정부-제2 공화국

- ◆ 장면 정부 1960-1961
- ◆ 언론 방임 정책: 헌법에 언론자유 명시
 - 1) 공보실 폐지, 신문발행 허가제
 - 서 등록제로,
- 2) 언론 불간섭
 - 사이비 언론의 발호 : 일간지 10배 증가





연합뉴스 TV | 채널 23

08:56

남성물산 현 이사진 교체 고려해야"

롯데 신격호 회장 조카들, 증여세

코스피 2104.41 ▼ 2.92



3. 제3. 4 공화국(박정희 정부) 1961-1979

◆ 박정희,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이미지

그러한 언론관이 5·16 쿠데타 직후 사이비 언론 척결 조치,

집권 이후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더 강조하는 언론정책으로 나타나

1. 언론 탄압과 특혜 병행

-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특혜를 병행, 채취과 당근
- 100여종이 넘는 일간지와 통신사를 대폭 정비
- 반공법으로 언론 탄압, 1971년 프레스 카드제 실시(보도증 발급을 정부가)
- 언론 통제는 1972년 유신헌법으로 절정
-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정책: 일부 언론에 신문 용지 공급, 은행융자 혜택 특혜 부여

2. 언론기업의 카르텔화: 신문의 기업화, 상업화,

- 일간지 경영주들 1962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창립>한국신문협회



3. 제5 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1987

- 언론기본법 만들어 대대적인 언론탄압:

1. 1980년도의 언론사 통폐합

- 통신사 통합 연합통신으로, 지방지 1도1사, 신문과 방송의 경영 분리,
- 삼성그룹의 TBC동양방송을 KBS에 통합해 KBS2로, 동아방송도 KBS로 통합
- 중앙일간지 정비 일간지 28개>11개로, 언론인 2000명 해고

2. 언론기본법: 신문과 방송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단일화,

- 언론의 자유 보장 내세우며 실제로는 독소조항으로 언론탄압 악용

3. 경쟁 없애 언론기업 수지는 개선





우리 군은 과거에 그분을
그듯이 큰 분이다.

공영방송 KBS
전두환 찬양

4. 민주화 이전 정부와 언론 갈등

- 정부와 언론의 갈등관계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
- 정부수립 이후 제5공화국 말까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1. 첫째는 역대 정부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는 데 기인.

-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마련.
- 정권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통합의 목표달성이나 근대화 과정에서의 경제개발 주도 등을 위해 언론을 침묵시키거나 언론을 동조자로 만들기 위해 언론에 개입

2. 둘째는 권력 유지, 혹은 정권의 정당성 결여로 인해 언론에 개입

-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



5. 언론과 정부 갈등 원인

- 1. 언론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의 수호자로 자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사명
- 정부의 권력 남용이나 오용을 감시, 고발하며 정부관리들의 과오와 실정을 비판하는 일에 중점. 그 결과 정부와 언론은 갈등관계
- 2. 최대의 정보원인 정부는 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밀 보호는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는 입장
- 언론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유통과 최대한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
- 여기서 정보 통제와 공개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알 권리를 지키려는 언론 사이 갈등
- 3. 지나친 정부의 홍보 요구와 언론의 비판적인 관행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야기
- 4. 언론 기업이 대기업화되면서 경영비용 증대, 재정 압박으로 종속관계 또는 갈등관계로



6. 노태우 정부 이후(1987-현재)

- 언론 자율화 이후: 1987-현재

1. 언론 압박의 새 수단 세무조사

-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 2월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 친여 신문(한겨레, 경향, 서울)과 방송은 이를 언론개혁으로 포장.

2. 노무현 정부 : 신문법 제정, 친여 신문과 방송에 특혜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혁입법이라는 명분으로 개정해 비판 신문 억압,
- 신문법은 친여 신문 육성법, 국가예산으로 언론 지원
- 서울, 한겨레, 경향 등 친 정부 신문에는 파격적인 지원, 정부광고 몰아주기



7. 노무현 정부(2003-2008)

1. 언론의 취재권 제한

- 부처 기자실 폐쇄, 통합 브리핑 룸 개설,
- 공무원 개별접촉 금지, 정례 브리핑제 도입
- 취재 시스템 선진화 방안, 알 권리 위축
 - *알 권리 :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정부의 실정을 감시하고 비판

2.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한 후 2006년까지 언론 상대 5건 민사소송 제기
- 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 견제수단으로 악용, 국민 대신 정부기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
- 노무현 대통령은 17건, 정부부처는 이틀에 한번 꼴로 언론 중재 신청



8.1987 언론 자유화 이후 정부와 언론

- ◆ 1. 발행의 자유는 정착되었으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새 국면
방송, 인터넷, 노조, 시민단체가 변수로
- ◆ 2. 노무현 정부 : 개인적 피해의식으로 신문에 매우 부정적, 취재제한 조치
- ◆ 3. 문재인 정부 : 비판언론에 적대적
 - ◆ 친 정부 매체와 비판 매체가 극명하게 대립
 - ◆ 정부 지상파 방송 장악, 비판 신문 견제에 활용
 - ◆ 정부 비판 뉴스를 가짜 뉴스로 몰아 부치기도
 - ◆ 방송뉴스 편향성 논란



9. 언론과 정부 관계 연구

- ◆ 정부와 언론 관계는 오랫동안 저널리즘 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
- ◆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정부와 언론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민주주의 이상으로 봄.
- ◆ 정부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으로 언론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라는 것
- ◆ 홍보학 영역에서는 그루닝과 헌트(GRUNIG & HUNT, 1984) 모델에 따라 정부와 언론과의 이상적인 관계는 갈등이나 적대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봄
- ◆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다분히 언론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범적 성격이 짙어서 실제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의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10. 언론과 정부 연구-거시적 수준

- 언론과 정부의 관계 이론적 관점을 학자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층위 수준에서 연구
- 거시적 수준(MACROSCOPIC LEVEL), 조직적 수준(ORGANIZATIONAL LEVEL), 미시적 수준(MICROSCOPIC LEVEL)으로

1. 첫째, 거시적 수준 연구는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른 분석

- 이는 언론의 4이론(FOUR THEORY OF THE PRESS)에서 나타내고 있는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정부와 언론 관계를 유형화, 정치체계의 성격에 따라 관점 결정
- 하지만 거시적 수준의 분석은 언론의 4이론 중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확장된 논의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해 많은 비판(NERONE, 1995/1998).



10.언론의 4이론(SIEBERT,PETERSON & SCHURAMM 1963)

◆1.권위주의 이론

미디어는 사회내 정치권력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시각
과거 유럽의 왕정 시대나 현대 독재정권이 군림한 국가, 언론이 정부의 통제하에

◆2. 자유주의 이론

언론 활동은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밀턴의 파레오 아지티카
언론 정부 관계는 적대적,

◆3. 사회책임주의 이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허친스 위원회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 언론과 정부 관계는 견제와 균형

◆4.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 언론과 정부 일체적 관계, 미디어는 이데올로기 전파 기구 로 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선전선동 역할,



10. 언론과 정부 연구 - 조직적 수준

- 조직적 수준 연구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기관 대 기관의 관계로 보고 분석
- 이 범주의 연구에서는 대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최영재, 2010).
- 즉,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정책홍보를 하고, 언론은 이를 기본으로 취재하여 국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같은 분류는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별로 논조가 다르거나 정정보도 청구나 법원 제소 등 정부의 법적 대응이 언론사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양승목, 2006)



10. 언론과 정부 연구-미시적 수준

- ◆ 미시적 수준은 언론인 개인과 공직자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 ◆ 이 범주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언론인과 공직자의 관계를 적대나 공생중 하나로 파악하는 경향
- ◆ 적대 관계는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며(이재진, 2008), 공생 관계는 언론인과 공직자가 상호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 ◆ 조직적 수준처럼 공직자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이 필요하며, 언론인도 정확한 취재원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
- ◆ 이 같은 이론은 과거 벨츠 등(BELZ ET AL., 198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정부담당자들과 언론인들의 의식에 근거해 적대와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두 집단 간 관계의 본질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사례



11. 정부와 언론 관계-진자 운동 모형 유재천.이민웅

- 조건의 변동에 따라 적대 관계와 일체 관계 사이에서 진자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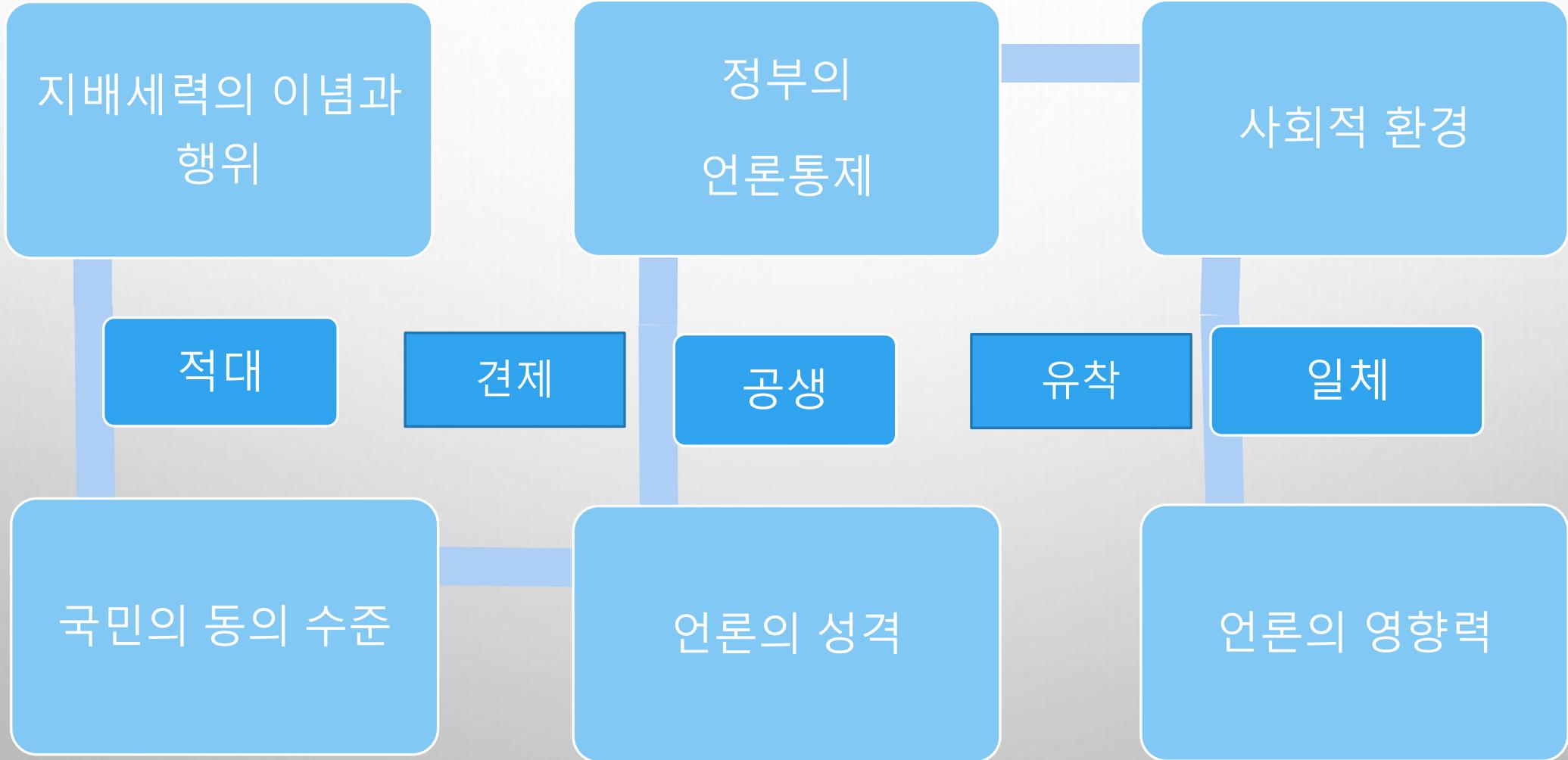


- 타도의 대상 견제와 비판 공생 공조 종속적 강제 동조 통치기구 한 부분

- 지배적인 사회 세력 : 성격, 이념, 행위
- 정부의 성격 및 언론 통제 방식 : 법률적, 비공식적, 경제적 통제, 정보 통제
- 사회적 환경 : 지배 세력에 대한 국민(수용자)의 동의 수준
- 언론의 성격 : 소유 및 편집권에 대한 통제, 언론인의 태도 및 직업윤리, 언론의 관행, 매체 경쟁
- 언론의 영향력 : 대정부 (정책결정 과정), 대국민 영향력(현실인식·여론)



11. 정부와 언론의 구성 모형 (유재천.이민웅)



12. 언론과 정부관계 모델 최경진(2003)

-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 모델로 최경진(2003)이 제시했던 다섯 가지 모델
- 이는 RONNEBERGER(1978), SCHATZ(1978), NOELLE-NEUMANN(1977), SARCINELLI(1987), CHOI(1995) 정리
- 상호의존모델/ 정치권력우위 모델/ 언론 우위 모델/ 상호 공생 모델/ 상호 침투 모델로

1. 상호의존 모델:

일반적으로 정치와 언론의 체계는 상호의존 속에 있다는 전제

- 언론은 정치체계의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하고 이의 피드백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
-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기능을 통하여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를 형성
- 이는 가장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12.정부와 언론 관계 모델 최경진(2003)

2.정치권력우위 모델

- 민주주의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전체주의적 획일주의적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
-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억압이 유지되던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같은 사회에서도 종종 나타나.
- 정치권력우위모델의 사회 속에서는 언론 체계가 자율성을 상실, 정치권력에 예속

3. 언론 우위 모델:

- 정치권력우위 모델과 반대의 개념. 언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정치의 위상이 하락한다는 모델
-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 언론의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정치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 이는 정치 체계가 언론 체계에 의해 고유 기반인 권력마저 상실할 수 있는 모델



12.정부와 언론 관계 모델 최경진(2003)

4. 상호 공생 모델

- 언론과 정치가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며 공생한다는 모델 . 이는 양측이 서로를 권력 대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고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봄 .
-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존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어 상호의존모델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양측이 타협을 한다거나 언론이 정치의 한 행위자로 정치 체계가 직접 보도 주체가 되는 점이 상호의존 모델과의 차이.

5.상호 침투 모델

- 정치가 언론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기만 하는 정치권력우위 모델과는 차이.
- 정치 체계가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의 내부에 침투하는 것.
- 그러나 정치의 도구화가 언론은 그대로 예속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로 인해 정치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
- 결국, 이 모델은 이렇게 상호 침투 과정속에 양측이 존재한다는 것
- 이는 상호 의존이라는 단순한 관계보다 더 나아간 복합적 작용을 벌인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13. 정부와 언론의 관계 구분(F. SIEBERT)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부를 4가지로 구분

1. 구속 기관으로서의 정부 :

2. 조정 기관으로서의 정부 : 언론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언론 활동의 조건을 규정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공익에 더욱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돕는 관계,

- 공익 명분 강제력 동원 시 갈등 예> 사이비 언론 정비

3. 조성 기관으로서의 정부 : 정부가 언론 기업에 특혜를 베푸는 것

- 친정부계 언론과 반정부 언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효과적인 수단
- 따라서 정부의 언론 기업에 대한 조성 정책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을 갈등관계로 가져갈 가능성. 예> 감세 또는 면세

4. 참여 기관으로서의 정부: 정부가 언론매체를 소유, 경영함으로써 직접 정부정책을 홍보 통로를 마련



14. 대립인가 공생인가?

- ◆ 전통적인 관점은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대체로 '대립 관계' 내지 '견제 관계'로 보았다.
- ◆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는 관점도 대두.
- ◆ 언론에게 정부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언론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생관계를 유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
- ◆ 따라서 이 두 관계의 유형을 종합해볼 때, 그리고 쿠데타, 전쟁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견제 관계'와 '공생 관계'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진자운동으로 파악하는 것 타당³³



14. 대립인가 공생인가?(2)

- ◆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상황 조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해
- ◆ 왜냐하면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통제력 행사 방식, 정부의 정보 채널 성격, 관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언론기업 자본의 성격, 언론 조직 내부의 규범, 편집 정책 그리고 개별 언론인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서 '일체 관계'라는 양극 사이의 어떤 유형일 수는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극단적인 유형의 관계는 드물 것.
대체로 '견제 관계'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15. 정부와 언론 관계는 어떻게?

◆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오랜 동안 언론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려와

◆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의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견제와 긴장 관계 유지해야

◆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조종과 통제를

시도하지만 언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정부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해야



*취재원 공개 논란

• 미국 “방패법” (SHIELD LAW)

- 1896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유력 일간지 '볼티모어 선'의 경찰기자 존모리스는 금품이 오가는 부정선거 현장을 보도했다가 고발당한다.

경찰은 그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여론은 모리스 편. 비리를 추적 보도하려면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방패법(SHIELD LAW)

- 방패법도 처음엔 주에 따라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다가 ‘표준형’이 마련된 것은 1972년 켄터키주 폴 브랜즈 버그 기자의 마약제조실태 보도 사건이 계기.
- 브랜즈 버그 기자는 마약거래상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수사당국의 요구를 일축.
- 연방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법정에서 취재원을 숨길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취재원을 알고 싶다면 ‘압도적이고 강력할’만큼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그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 취재원 공개 논란 <알 권리와 취재원 보호>

2003년 7월 뉴욕 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가
국가기밀에 관한 보도(리크 게이트)를 하면서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85일이나 수감.

차제에 좀 더 정밀한 방패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일어.

미 하원은 정부 권력이 취재원 공개를 요청하려면

'검찰이 진실 파악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취재원 공개가 수사에 결정적이어야 하며, 임박하고 실질적인 국가안보 위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는 내용의 발전된 방패법을 통과시켜.

언론의 주요 감시대상인 정치인들이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언론자유가 기자나 언론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방패법은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누구든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보를 전해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좋다는, 일반 국민보다 한 단계 높은 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알 권리를 수행하고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자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

16.언론 없는 정부,정부 없는 언론

-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NEWSPAPERS)’와
‘정부 없는 언론(NEWSPAPERS WITHOUT GOVERNMENT)’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선택하겠다”
- 언론에 대하여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언론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력도
- 언론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 언론과 정부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못하면 언론의 사명 포기하는 것



17. 언론과 권력의 밀월 관계

- 한겨레 김의겸 기자 청와대 대변인, 관사 재테크, 투기 의혹에 중도하차
- 그 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투기한 주택을 되팔고 총선에 출마,
2021년 4월 위성정당 열린우리당 비례의원 승계
- 언론과 권력의 밀착을 비판했던 한겨레 여연호 기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직행
- MBC 윤도한 기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2020년 중앙일보 강민석 기자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해 논란, 2021년 교체
- 2017년 SBS 문재인 담당기자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 직행 논란
- 그후 1년 만에 다시 메리츠 금융 상무로 파격 발탁돼 구설수



18. 개의 메타포로 본 언론의 유형

1. '감시견' / 워치독(WATCHDOG):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

- 건강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
-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은 이 워치독 신봉론에서 나온 것
- 워싱턴 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

2. 애완견 / 랩독(LAPDOG)

언론이 권력의 애완견 같은 역할

- 권력에 비판적이지 않고 권력에 순응해 동화되고 기생할 뿐
-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



18. 개의 매탠포로 본 언론의 유형

- 3. 경비견/가드 독(GUARD DOG) :

-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서 권력화
-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권력 지배 집단 이익 보호
- 때로는 권력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이익과 반할 때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

- 4. 잠자는 개/슬리핑 독(SLEEPING DOG)

-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 5. 공격견, 안내견 등





감사합니다